세계적 꽃 축제 장소가 되고 있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큐켄호프공원.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

〈26〉 유럽편 '도시와 공원'

프랑스 리옹의 떼떼도르파크의 드넓은 녹지에서 한가로운 평일 오후를 보내는 시민들. 엄청난 면적의 이 공원에는 동물원과 식물원, 호수, 녹지 등이 펼쳐져 있으며, 그 면적은 웬만한 택지지구보다 크다.

도심 속 일상탈출…자연·문화 숨쉬는 휴식의 요람

시가지 중심부에 녹색공간 조성 주변 문화시설과 시너지

꽃 축제·공공미술의 향연 등 도시 특징살려 관광 명소화

안식처로 만남의 장소로…지친 도시민의 '생태 사랑방'

도시에서 공원은 산소 공급원이면서 동시에 도시민들에게 주는 최고급 자연서비스다. 운동을 하거나 가족 등과 여유를 즐기고 애완동물과 산책도 가능하다. 자동차, 공장 등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오염으로 뒤덮인 도시에서 공원은 조금이라도 그 오염물질을 씻어낼 수 있는 작은 녹색 공간인 셈이다.

도시 내 자연녹지나 논밭 등 생산녹지가 존재하지만 공원은 시가지 내에 있고 편의시설이 설치된다는 점이 다르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지구공원 도시공원 등 공원은 그 규모에 따라 분류되며 초기에는 사람이 즐기는 것을 중심으로 조성됐지만 도시개발이 반복되면서 차츰 사라져가는 도심 녹지를 보존하는 쪽으로 그 방식이 변하고 있다.

광주의 첫 번째 공원인 광주공원은 일제강점기 초 1913년 성거산 일부를 깎아 1만여 평의 공간에 조성됐다. 당시 광주공원에서는 광주읍성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 일대를 내다볼 수 있는 장소였으며, 또 목포에서 광주로 오거나 광주에서 서울로 가는 도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요충지였다. 일제강점기 이전 광주는 시가지 전체가 나무로 뒤덮인 말 그대로 자연공원 상태였으며, 인공미가 가해진 근대식 공원 자체가 필요없는 곳이었다. 일제는 광주의 가장 중요한 장소에 공원을 조성하고, 신사를 지었으며, 벚꽃을 심어 즐겼을 뿐이다.

광주공원을 시작으로 사직공원, 경양방죽공원 등이 생겨났으며, 이후 도시개발과정에서 인구가 팽창하면서 광주는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가 되고 말았다. 그만큼 공원이 희소 가치를 지니게 된 것이다. 특히 구도심은 심각했다. 공원의 중요성이 그다지 부각되지 못한 시기에 도심 녹지는 잘려나가고, 방치되고, 개발됐기 때문이다. 도시 외곽에 들어선 택지지구는 최소한의 공원 면적을 확보하도록 했고 그나마 잔존해 있던 녹지 덕분에 상대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 됐으며, 그렇게 구도심과 신도심의 삶의 질 격차는 벌어지고, 사람들은 구도심을 떠나갔다.

유럽 도시 공원의 공통점은 도심 내에 광장,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 문화시설, 그리고 다양한 기능의 공원들이 연계되면서 시너지를 발휘하고, 공원 역시 식물원·동물원·호수 등 자연이 줄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단순히 '억지춘향식'으로 판박이 공원을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도시 삶에 지친 주민들이 모여들 수 있는 시설과 아이디어로 특징 있는 공원을 가꾸었다는 점도 주시할 부분이다.

영국 에딘버러의 공원은 에딘버러 성이 보이는 시가지 중심부에 넓게 자리하고 있다. 스콧 윌슨 등 지역 출신 문학가들의 동상이 즐비하고, 이름 모를 누군가가 기증한 벤치들이 있지만, 공원의 주인공은 단연 잔디와 나무였다. 노란 튤립 등 꽃들이 만개해 장관을 이루며, 벤치는 물론 공원 곳곳에 눕거나 앉아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이 그 주변에 들어선 중세 및 근대건축물, 에딘버러 성 등 도시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감탄하고 있었다. 이 공원에는 에딘버러 관광버스의 정류장이 있어 외지인들도 자주 눈에 띠었다.

취재진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큐켄호프공원을 찾았을 때는 한창 꽃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성인 1인당 14.5유로(한화 2만3000원 정도)의 비싼 입장료에도 불구하고 공원 안으로 들어선 순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꽃과 그것을 이용한 작품, 크고 작은 미술작품과 스트리트퍼니처(공공미술)들의 향연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특히 공원 밖도 공원 못지 않는 풍경으로 산책하는 입장객들을 만족시켰다.

유럽 도시의 공원 중 규모나 구성, 즐기는 시민들이 단연 압도적이었던 공원은 프랑스 리옹의 떼떼도르파크(황금사자공원)이었다. 도심에서 노면전차로 20여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이 공원은 리옹 1대학, 외국인 학생 기숙사와 바로 접해있으며 공원 안에 동물원, 식물원, 호수는 물론 산책로와 자전거 트랙, 근대식 건물 등이 아기자기하고 때로는 웅장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수 많은 사람들이 햇빛에 피부를 그을리고, 공놀이를 하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음식을 먹는 등 녹지 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고 있었다.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의 에코스테이션 공원은 말 그대로 생태정거장과 같은 공간으로 모든 건축재료를 나무로 만든 전망대와 숙박시설 등과 녹지, 꽃, 나무 등을 적절히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또 공원 내 모든 길은 아스팔트 없는 자연 그대로의 흙길이었다.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고, 중세 및 근대 건축물들이 둘러싼 주변 전경은 공원의 존재가치를 더욱 발하게 하는 좋은 배경이 되고 있었다.

/글·사진=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영국 에딘버러공원. 관광버스의 정류장이 있는 이 공원에서는 에딘버러성이 보이고, 주변은 동상과 중세·근대건축물이 에워싸고 있다.